

이성해 대광위원장, 제1회 환승 혁신 포럼 주재

-29일 출범, 민·관 함께 미래 광역교통 환승체계 고도화 방안 논의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6월 29일(목)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“제1회 환승 혁신 포럼”(이하 포럼)을 주재하여 모빌리티 혁신과 연계한 미래 환승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.
- 이 포럼은 고속·광역교통망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, 미래 광역 대중교통 체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,
 - 교통, 도시계획, 지역개발, 공공·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, 미래 지향적인 환승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되었다.
- 의장은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맡았으며,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, 대한교통학회, 한국교통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카카오모빌리티 등 산·학·연·관 관계자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고,
 - 앞으로 반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지향 개발, 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환승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평택시·강원도가 평택지체역과 강릉역에 대한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 구상을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획연구 중인 미래 멀티 모빌리티 환승 기술개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,
 -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미래형 환승센터를 지역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복합개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.
- 이날 포럼에서 이 위원장은 “광역교통망이 복잡화되면서 교통수단 간의 환승은 일상이 되었지만, 그에 비해 환승체계 고도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”이라면서,

- “오늘 발족한 환승 혁신 포럼은 환승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, 광역교통에서 환승 편의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분들이 적극 도와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6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고속·광역교통 SOC 구축·투자 확대에도 **광역교통 혼잡**은 여전
→ **환승체계 고도화**를 통해 **대중교통 경쟁력 강화** 필요

* GTX 도입 등 복잡고속화되어가는 대중교통의 이동서비스 효과 체감을 위해서는 환승편의의 뒷받침 필요

** 2030 청년의 36.3%는 환승지점 혼잡과 장거리 환승을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('22.11, 청년재단-뉴스1)

- UAM,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, **다양한 모빌리티간 환승 편의의 중요성**도 대두

⇒ **환승정책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발굴·논의의** 場으로, 산·학·연·관이 참여하는 **포럼 구성·운영** 추진

※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포럼('23.2~)에 발맞춰, 모빌리티간 환승을 논의하는 포럼 발족
↳ 6개 분과(자율차·UAM·친환경·물류·서비스·공간)로 구성

□ 포럼 운영방안

- (목적) 의제를 **교통, 도시계획, 지역개발** 등 각 분야에서 폭넓게 검토·논의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**환승정책 방향**을 정립
- 미래 멀티 모빌리티간 최적 환승체계 구상,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지향 개발*(TOD), 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
- (구성) **대광위원장을 포럼 의장**으로 하여, 관련 학회·연구기관·공공기관·업계 전문가 등 15명*으로 구성

* 대광위, 대한교통학회,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, 한국민간투자학회, 한국교통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부동산개발협회, SK텔레콤, 오토노머스에이투지, 카카오모빌리티

- (운영) 반기별 **1회** 개최하여 전문가 발제 후 **정책토론회** 실시